

바보 제 아무리 많이 들었다 허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듣지 아니한 것과 같음을 알았사오니, 이는 마치 말로만 음식을 말하고 먹지 않으면 결코 배부르지 않는 것과 같다.

-능엄경-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년
불교미술전시관
신앙심화 위한 것
백암상설에 두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종사 청동대불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0월 11일 수요일(주간) 제 289호

자기를 바로 봅시다

『**편**』



서울 모사할에서 만난 박영순보살(47세)에게 불교문화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석굴암, 팔만대장경, 불상, 불화, 단청, 영산재..."

이어서 가장 최근에 불교관련 전시회나 공연을 감상한 적이 있는냐고 물었다.

"입시를 앞둔 자식녀석 때문에 불교문화같은 데 솔직히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사실 박보살의 대답은 대다수 불자들의 오늘을 그대로 반영한다. 각종 전시와 행사들이 집중해 있는 서울 조계사와 인사동

불교문화

유물·유적 전시위주 행사 '찾아가는 문화프로' 필요

인근에서 활동하는 불자들이나 미술과 음악, 연극 등 불교문화에 관심있는 일부 불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불자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최적의 문화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사찰에서조차 불자들을 위한 문화행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불교문화에 대해 무지할 수 밖에 없다. 불교문화는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라 생활속에서 불자들의 삶을 보다 온택하게 하고, 그를 통해 불법의 진리를 삶의 원리로 승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유 무형의 불교문화는 단순한 유물이나 문화적 결과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

오페라, 산사음악회, 각종 전시와 공연 등 지난 몇 년 사이 불교 문화행사는 양적인 면에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불자들은 문화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등 문화에 출연연기관과 민간단체 30곳이 참가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불교계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좋은 예다. 농어촌과 벽지, 공간 지역 등 문화 소외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 프로그램은 올해에만 전국에서 134개 프로그램이 830회나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불교 문화프로그램으로 불자와 일반 대중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을 찾아가자. 가서 불교문화를 펼쳐 보이자. 내용적인 면에서야 첫 술에 배부르랴만 미술전시, 음악공연, 시낭송회 등 소규모 행사에서부터 하나씩 시작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자연스레 불교문화와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불교문화는 차츰 성숙해져 갈 것이다.

이은지 기자(ejlee@buddhania.com)

한국불교 중심 '조계사' 광화문 문화벨트 제외

서울시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서도 빠져

서울시가 추진중인 광화문 문화벨트와 역사탐방로 사업에 조계사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광화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우고 준비중인 '광화문 문화벨트'의 경우 세종로를 중심으로 경복궁 덕수궁 경희궁 인사동 가동동 등 5개권역을 시티투어(City Tour)로 연결, 시너지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 또 외국인들과 시민들이 걷고싶은 거리, 찾고싶은 거리로 기억될 수 있도록 추진중인 4대문안 역사문화 탐방로의 경우도 인사동, 북촌길, 경복궁길, 고궁길, 대학로, 명동길, 장동길, 남산길이 채택돼 정비되고 있다.

하지만 각 권역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조계사의 경우 한국불교의 중심지이며 하루 300여명의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벨트에서 제외된 서울시 행정에 의외의 눈길은 모아지고 있다. 특히 천주교의 중심지인 명동성당이 역사탐방로로 지정돼 도로 포장과 가로시설물, 조명시설물, 유적설명 안내판이 대대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에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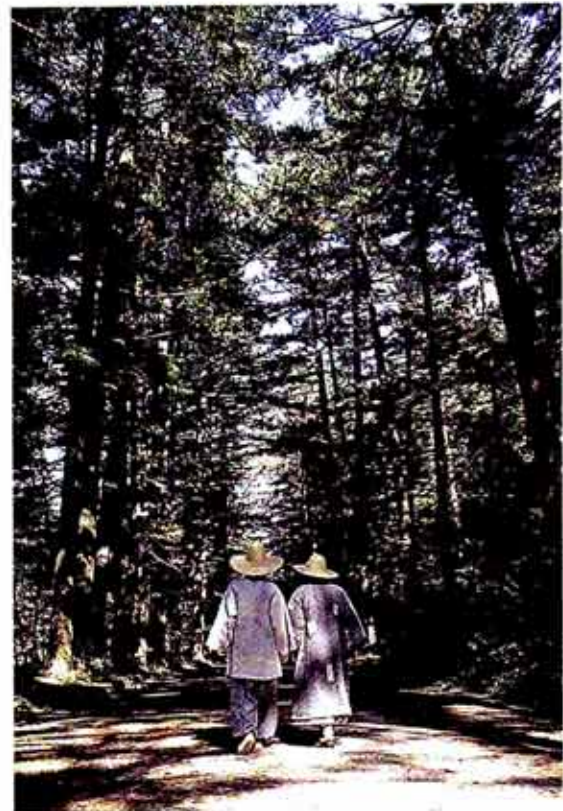
이에 대해 조계사 이세용 교무계장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광화문 문화벨트에 역사적 가치가 높은 조계사가 빠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당혹감을 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사는 지난해부터 주지 지홍스님 주재로 몇 차례 중무회의를 갖고 자체적으로 광화문과 인사동 조계사를 연결하는 문화벨트를 추진했다. 그 일환으로 '열린조계사' 시민과 함께 하는 조계사를 기치로 내걸고 '전통가람을 복원한다'는 계획 아래 경내 정비, 대웅전과 탕화 보수까지 마쳤다.

또 외국인안내소를 설치하고 2명의 안내원을 상주시키고 올해에는 신도 30여명을 선발해 외국어 통역교육을 시키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서울시 문화과 서문수 주임은 "현재 계획으로는 인사동 안내판에 조계사를 주변 문화유적으로 소개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사는 근대 목조 건축물인 대웅전(서울시 유형문화재 127호), 목조석가불좌상(서울시 유형문화재 125호) 후불탱화(서울시 유형문화재 126호)와 천연기념물 9호 백승, 서울시 지정보호수 78호 회화나무를 보유하고 있다. 또 조계사 인근에는 사적 213호 우정국자 자리잡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w@buddhania.com)



'같은 가는 자의 몫' 같은 언제나 가는 자의 몫이다. 속살을 에는 서늘한 바람 맞으며도 하늘로만 끈게 맺는 월정사 입구 천나무 길처럼 계절의 헛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날아진 바람 다시 물러 불리고, 그렇게 현대불교는 언제나 새롭고 굳은 길을 갈 것이다.

월정사=고명애 기자

노동당 창건 초청 종단협 '신중처리'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북한에 노동당 창건 기념 행사 초청과 관련, 4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예민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각 단체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조계종과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종단협의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사회단체 합동회의' 명의로 초청장을 받았다.

정성운 기자

생명복제 자문위 구성

불교 개신교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 인문사회과학계, 생명과학계, 의학계 각 5명씩 모두 20여명으로 구성되는 생명윤리 자문위원회가 과학기술부 주관 기관으로 구성된다. 과학기술부는 2일 조계종총무원 등에 추천을 요청했다.

자문위원회는 동물복제의 허용 한계, 인간 배아복제의 허용 여부와 한계 및 윤리문제, 인간과 동식물의 교잡 허용 범위, 인간유전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정성운 기자

"남북 불교 통일토론회 이달중 북경서 실무협약"

종교부동산 면세 2003년까지 연장

종교목적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면세 조치가 2003년까지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82조에 따르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현행 법에서는 올해까지가 면세 시한이다. 정성운 기자

창간 6주년 특집 28면 발행

전문가 좌담 '불교와 통일'	4·5면
통일이념 왜 원효사상인가	6면
인터넷 신행 '새 바람'	18면
현대불교의 사이버 영토	21면
'독자와 함께' 현대불교 6년	22면

제 6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의 정경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살린수행의 장으로 이끌어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6회째를 맞습니다. 가을에 담아두어 온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부터 총회총무원장이 추가해 신행수기 공모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푸짐한 상금이 준비되어 있으며, 입상작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에 게재되오니 이번 공모에 불자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원고지 30매...마감 12월16일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대상(유아상): 3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대상: 2000년 12월 16일
 △대상: 2000년 12월 16일
 △대상: 2000년 12월 16일
 △대상: 2000년 12월 16일
 △대상: 2000년 12월 16일

△대상(유아상): 상장, 부상(순금 향문의 열쇠)
 △우수상(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향문의 열쇠)
 △특별상: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향문의 열쇠)
 -한태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향문의 열쇠)
 -관음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향문의 열쇠)
 -광화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향문의 열쇠)
 -대한불교 진종원 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향문의 열쇠)
 △모용지 정한, 기념품 증정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지금 계시는 주변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거리의 자동차도, 지하철도, 아이들의 자전거도
 철이 없다면 달릴 수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 철을 만드는 세계적인 철강회사-포스코
 철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멈춰 버릴지도 모릅니다.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포스코입니다.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POSCO
 www.posco.co.kr